

##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경험 및 지원요구\*

정 소 영\*\*

한국복지대학교 교육연구사

---

### 《 요 약 》

---

이 연구는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경험과 지원요구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학진학 결정 요인, 대학진학 준비, 제공받은 대학진학 지원, 대학진학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았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고등학생 20명, 대학생 40명으로 총 60명이었고,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학생을 고르게 선정하였다.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면담지를 개발하였고, 참여자의 지역을 고려하여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결정하였고, 부모와 선생님이 대학 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학진학 준비는 졸업학년에 임박해서 준비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장애학생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수험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움과 학교차원의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 진학정보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진학 지원 정책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지원정보 통합사이트를 구축해서 대학정보, 수험자료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 연구는 장애학생의 대학진학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

주제어 : 장애학생, 대학진학 준비, 대학진학 결정 요인

---

\* 이 논문은 국립특수교육원 용역연구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제 1저자, 한국복지대학교 교육연구사 (nsyoung@knuw.ac.kr)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에 입학하는 장애학생은 학문적 우수성과 수월성을 지니고 있어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교육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습득한 전공지식을 살려 전문적인 취업 분야로 진출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증진하고자 한다(권현용, 김현미, 2004; 김동일 외, 2004; 김미선, 박중휘, 2013; Rowell et al., 2014). 대학 진학은 사회 구성원과의 삶 속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실현시키는 계기를 제공(김경선 외, 2013)하는 효과가 있어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대학진학이 증가하면서 대학 진학과 관련한 다양한 요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장애학생의 대학입학 전형을 다양화하여 고등교육의 균등한 조건을 제공하고자 하였고(한경근, 2006),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위해 고등교육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대학은 그에 맞는 입학전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김종인, 2006).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진입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은 1999년에 6.5%의 대학 진학률을 나타냈다. 진학률은 조금씩 상승하여 2008년에는 16.8%로, 10년 동안 11.6%가 증가하였다. 이후 안정된 진학률을 나타냈고, 2011년부터는 추가 상승세를 보였고, 2015년은 15.9%, 2016년은 16.1%를 보이고 있다(국립특수교육원, 2010; 교육부, 2011; 2015; 20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를 살펴보면, 1997년 36개 대학에 276명, 1998년은 45개 대학에 355명이 입학하였다. 장애인 특별입학은 2007년 법적 근거가 제정된 이후 더 증가하여 518명이 입학하였고, 최근에는 2014년은 721명, 2015년은 1,3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4;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5). 장애학생의 대학진학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비장애학생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고등교육은 대학 입학 이후의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과 진로지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 및 지원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장애학생들은 대학입학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지원 서비스에는 만족하지 못하였다(나수현, 2003; 서선진, 2010). 나수현(2003)에 따르면 시각, 청각, 지체장애 특수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개선에 대해 특수교사들은 강도 높게 요구하였다. 특히 시각, 청각, 지체장애 특수학교 학생들의 대학진학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고등부 교육과정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들도 대학진학을 위한 보통교과의 주당 수업 시수와 대학입시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해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박승재(1998)는 시각장애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위해 보충수업을 많이 실시하고 교재 개발에 힘써야 하고 대학 특별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이 너무 높으므로 완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정의석, 이해균과 김정현(2011)은 전국 시각장애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진학 지원 실태, 개선방안을 조사하여 국가 및 학교차원의 지원 방안이 확대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은철과 김진호(2007)는 교사들이 청각장애학생의 대학진학에 대한 기대에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지체장애학생들은 특수학교에서 제공된 진학 지원이 매우 빈약함에도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에 의존하여 대학진학을 준비 하였고(서선진, 2010), 보조도구가 지원되어야 하나,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해 만족하지 못하였다(김경화, 2014). 발달장애학생은 고등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대학 입학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이효정, 이영선, 2011). 이윤미(2012)는 발달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지원에 대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인식과 고등학교에서의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진학지도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여 대학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대학진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학생들은 다양한 대학입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 준비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희망하는 대학을 진학하지 못해 포기하거나 미진학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박영근, 김정현 & Hosp, 2013).

고등학교 장애학생은 특수학교 뿐 아니라 특수학급에 배치된 경우가 더 많다.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 고등학생은 2015년은 11,823명, 2016년은 16,366명으로, 2016년에 특수학교에 배치된 고등학생 7,577명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다(교육부, 2015; 교육부, 2016). 장애학생이 어느 학교에 재학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장애학생들이 학교 배치와 관계없이 대학진학과 관련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받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진학반을 운영하거나 개별적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고 이마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학진학은 결국 장애학생과 가족 개인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정주한, 한경근, 2012).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을 희망하여 진학준비를 하고자 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진학 준비와 지원과 관련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으로 대학진학 기회 확대를 통한 고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대학진학 준비 과정의 지원요구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고등학교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 단계에서 진학지도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결정 요인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는 어떠한가?

셋째, 장애학생이 제공받은 대학진학 준비과정에서의 지원은 어떠한가?

넷째, 장애학생이 요구하는 대학진학 준비과정의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참여자

이 연구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이 포커스그룹 면담 대상자로 참여하였다. 장애유형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로 구분하였고,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포함하였다.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 총 20명을 장애유형별 5명씩 그룹화하고,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장애학생 총 40명을 장애유형별 10명씩 그룹화하여 선정하였다. 수도권 특수학교(급) 고등학교와 장애학생이 많이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한 참여자를 추천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신청자 6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응답이 불성실한 지체장애학생과 발달장애학생 2명을 제외하여 60명이 최종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자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장애학생 대학진학 경험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별 각 10명씩 모두 40명이고, 고등학생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발달장애별 각 5명씩 모두 20명이었다. 참여자의 성별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장애등급의 경우, 대학생은 2급이 18명(45.0%), 1급이 13명(32.5%), 3급이 6명(15.0%)으로 중증장애가 많았고, 고등학생은 1급이 9명(45.0%), 2급과 3급은 각 5명(25.0%)로 역시 중증장애가 많았다.

<표 1> 참여자 정보

구분		대학생		고등학생		계	
		n	%	n	%	n	%
성별	남	21	52.5	10	50.0	31	51.7
	여	19	47.5	10	50.0	29	48.3
장애유형	시각장애	10	25.0	5	25.0	15	25.0
	청각장애	10	25.0	5	25.0	15	25.0
	지체장애	10	25.0	5	25.0	15	25.0
	발달장애*	10	25.0	5	25.0	15	25.0
장애등급	1급	13	32.5	9	45.0	22	36.7
	2급	18	45.0	5	25.0	23	38.3
	3급	6	15.0	5	25.0	11	18.3
	4급	0	0.0	1	5.0	1	1.7
	5급	2	5.0	0	0.0	2	3.3
	6급	1	2.5	0	0.0	1	1.7
고등학교 배치유형	특수학교	14	48.3	15	51.7	29	48.3
	특수학급	26	83.9	5	16.1	31	51.7
대입전형 유형**	특별전형	36	90.0	19	95.0	55	91.7
	일반전형	4	10.0	1	5.0	5	8.3
대학진학 학과**	인문사회	31	77.5	9	45.0	40	66.7
	공학	1	2.5	1	5.0	2	3.3
	예체능	5	12.5	5	25.0	10	16.7
	자연과학	2	5.0	0	0.0	2	3.3
	기타	1	2.5	5	25.0	6	10.0
계		40	100	20	100	60	100

\*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진단받은 학생을 포함

\*\* 고등학생은 희망하는 대입전형 유형과 대학진학 학과를 말함

고등학교 배치유형에서는 대학생은 특수학급에 26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고 (83.9%), 특수학교에는 14명(48.3%)이 배치되어 있었다. 고등학생은 특수학교에 배치된 경우가 15명(51.7%), 특수학급에 배치된 경우가 5명(16.1%)인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특수학급 31명(51.7%), 특수학교 29명(48.3%)으로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입시 전형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생은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경우가 36명(90%)로 대부분이었고, 고등학생은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희망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다(19명, 95.0%). 대학생이 진학한 학과를 살펴보면, 인문사회 계열이 31명(77.5%), 예체능 계열이 5명(12.5%)로 많았고, 고등학생은 인문사회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9명(45.0%), 예체능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5명(25.0%)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인문사회와 예체능 계열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2. 도구

이 연구에 사용한 면담지는 서선진(2010), 양경미(2011), 이윤미(2012), 이소현, 이숙향, 윤선아와 김지영(2013)이 사용한 도구의 문항을 수집하여 특수교육 박사 2명과 석사 4명이 이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분석하여 수정 · 보완하였다. 고등학생 대학진학 준비관련 실태 및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면담 내용을 구성하였고, 4차에 걸친 연구자간 검토를 통해 작성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을 수정하였다. 참여자별 면담 주요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참여자별 면담 내용

고등학생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일시, 장소, 성별, 장애유형(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 장애등급
도입 질문	자신의 소개, 연구 목적에 대한 이해
주요 질문	1) 대학진학(또는 학과)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
	2) 대학진학 준비경험
	3) 대학진학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
	4) 대학진학 준비와 관련해서 제공받고 있거나 받은 지원
	5) 우리나라의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진학 정책(법과 제도 등)
마무리 질문	추가사항, 제안사항, 기타 등
대학생	
구분	내용
일반적 특성	일시, 장소, 성별, 장애유형(시각/청각/지체/발달장애), 장애등급
도입 질문	간단한 자신의 소개, 연구 목적에 대한 이해
주요 질문	1) 대학진학(또는 학과)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
	2) 대학진학 준비경험
	3) 대학진학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4) 대학진학 준비와 관련해서 제공받은 지원
	5) 우리나라의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진학 정책(법과 제도 등)
마무리 질문	추가사항, 제안사항, 기타 등

면담지는 도입 질문, 주요 질문, 마무리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대상자에게 사전에 면담지를 발송하여 시간 절약 및 무응답을 최소화하였다. 참여자는 모두 연구 윤리동의서와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였다.

### 3. 절차

이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참여자의 선정은 각 학교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적합한 학생을 추천받았다. 연구보조원이 학생들에게 전화나 메일을 통해 연구 목적, 면담 내용 및 방법 등을 설명하고 면담에 관해 동의를 구하였다. 희망하는 면담 일시, 장소, 장애로 인해 필요한 지원 사항(수화통역, 속기 지원 등)을 수합하여 면담일정을 확정하였다. 대학생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특성으로 권역별로 구성하여 접근이 용이한 장소를 선정하여 전용 모임공간이나 대학교에서 면담을 실시하였다. 고등학생은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10명 이내로 그룹화하여 3~4시간 실시하였고, 참여자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참여자가 빠짐없이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2015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이루어졌다. 포커스그룹 면담 일정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포커스그룹 면담 일정

일시	장소	참여자		계 (N)
		대학생	고등학생	
2015. 7. 10(금)	○○농학교	-	청각장애 5명	5
	○○모임센터(강남)	장애대학생 10명		10
2015. 7. 14(화)	이룸센터	시각대학생연합회원 10명	-	10
	○○맹학교	-	시각장애 5명	5
2015. 7. 17(금)	○○모임센터(강남)	장애대학생 9명	-	9
2015. 7. 20(월)	○○고등학교	-	발달장애 5명	5
2015. 7. 21(화)	○○재활학교(오전)	-	지체장애 5명	5
	○○학교(오후)			
2015. 7. 24(금)	한국복지대학교	장애대학생 11명		11
합계 (N)				60

### 4. 자료수집 및 분석

면담 내용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속기사의 녹음과 기록으로 보관하였다. 전사된 자료는 연구자 2인이 녹음자료와 비교하여 누락사항과 오류를 확인하였다. 자료 처리는 면담 내용들을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전사된 면담 자료들을 범주화시켜 지속적 비교연구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부호체계를 마련하고 부호체계를 범주화하여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자료 분석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에 사용한 자료를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 및 분석하는 절차를 통해 자료 출처의 다원화(triangulation by data source)를 실시하였다. 참여자에게

면담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 자신이 답한 것과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Glesne & Peshkin, 1992; Goetz & LeCompte, 1984). 개별 코딩을 진행 후 연구자간 동료 검토를 실시하여 비교 분석 및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연구자간 면대면 집중검토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주관성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대학진학 결정 요인

##### 1) 대학(학과) 선택 고려한 사항

면담에 참여한 장애고등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 대학의 장애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한다고 응답하였다.

대학진로를 고민할 때 1순위로 흥미와 적성을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원 하는 학과에 흥미를 느껴야 4년이든 6년이든 짧지 않은 기간에 즐겁게 대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고요, 대학에 경사로가 없고 계단만 있다든가 기숙사가 없어서 통학을 해야 한다면 그 대학은 포기해야 해요(청각장애 한○○).

저는 적성과 흥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학을 다녀도 흥미가 없으면 졸업을 해도 단 1%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용성이 없을 거예요(지체장애 정○○).

장애대학생들은 적성과 흥미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장애 특성과 장애로 인한 안정된 일자리가 진로 선택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적성과 흥미로 선택한 학과에 다니던 학생도 포기하고 장애 특성과 안정된 직장을 위해 다시 진학하는 사례가 있었다.

저는 적성인데요, 특수교육과를 지원했다가 수능등급이 떨어져서 정시에서 비슷한

계열인 사회복지과를 지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각장애인이라서 관련된 직업을 가지길 원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나의 적성과도 맞는 것 같습니다(시각장애 최○○).

저는 컴퓨터과를 갔는데 이유가 고2때 IT챌린지 대회에서 2등을 했고, 컴퓨터도 재미있었고, 달리 잘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가보니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하나도 없었고, 처음 들어온 시각장애인으로서 도움도 미숙했어요, 1년쯤 다니고 휴학을 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적성과 흥미를 따지다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어요, 의류패션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시각장애 배○○).

컴퓨터게임개발과에 입학하게 된 계기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게임과 관련된 것을 배우다 보니까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게임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발달장애 김○○), 음악을 아주 좋아해서 엄마와 상의해서 음악과에 지원했어요(발달장애 최○○).

수학자가 꿈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이라 수식에 대한 이해를 버릴 수 있을까와 가정환경이 넉넉하지 않아 진로를 바꿨어요, 장애인이 가장 대접받고 살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서 행정고시를 보자고 생각하고 행정과를 선택했어요(시각장애 김○○), 가고 싶은 장애유아보육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장애학생 취업이 잘 안되다 보니까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먼저 고려했어요, 장애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될까봐 걱정입니다(지체장애 홍○○), 취업률이 높은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취업률이 높은 대학은 다른 대학보다 취업 정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시각장애 오○○).

저는 하도 아프니까 손으로 하는 일을 찾자고 부모님께서 말씀하셔서, 귀금속 보석공예과에 지원했습니다(청각장애 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잘된 대학과 시각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학과를 선택했어요(청각장애 최○○).

## 2) 대학(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 사람

장애고등학생들은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 부모와 선생님의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꿈이랑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께 조언을 많이 받고 있어요(시각장애 강○○).

부모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알아서 음악과에 가라고 말해줘서 알아보고 있어요(발달장애 정○○),

장애대학생이 대학과 학과를 선택할 때 자신의 소신을 가장 크게 고려하였고, 부모와 선생님이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성인이 된 만큼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여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제게 꿈과 미래가 없다면 앞이 캄캄할 것 같아요. 장애인으로 살면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차별 없이 혼자 힘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제 의지대로 행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지체장애 정○○),

엄마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제가 처음에 음악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취업이 어렵다고 엄청 반대하셨어요. 부모님을 설득해서 음악과를 선택했어요(시각장애 고○○),

부모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무조건 공무원이면 된다고, 사회복지든, 무조건 공무원이면 된다고 하셨어요(발달장애 김○○),

선생님을 통해 대학교 특정과의 혜택과 장애지원, 취업률 등을 알았고 추천받았습니다. 선생님과 상담 끝에 결정했습니다(청각장애 강○○),

## 2. 대학진학 준비

### 1) 준비 시기

장애고등학생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부터 대학진학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으나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대학진학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저는 조금 늦었어요. 대학교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생각은 조금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등학교 2학년 졸업하고 대학진학 준비를 시작했어요(지체장애 정○○),

중3때부터 고1때까지 취업을 할지, 대학에 갈지 고민하다가 고3이 되어서야 대학을

가겠다고 결정했어요(청각장애 김○○).

장애대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초기에 준비를 시작하거나 고등학교 3학년 전후에 대학진학을 준비하였다.

대학진학 계획을 잡은 것은 고2 초입니다. 공부는 안하다가 준비만 했고, 그냥 고3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시각장애 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교를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안 하던 공부를 하다 보니 잘 안 됐는데, 고등학교 2학년부턴 과외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지체장애 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부터 대학 탐방이나 자기소개서 쓰는 법 등 여러 정보를 얻기 시작하였고, 본격적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준비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청각장애 송○○).

어려서부터 미대 갈 생각으로 살았어요. 시각장애인이 주변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거냐고 해서 중3부터 고1 끝날 때까지 고민을 했어요. 대회 나가서 컴퓨터 하고 나서부터 진로 변경했어요. 고3 올라가자마자 대학진학 공부를 시작했어요(시각장애 박○○).

## 2) 정보 수집

장애고등학생들은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해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다. 주로 인터넷, 대학에 진학한 선배, 교사, 가족 또는 친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아요(발달장애 김○○), 대학교 홈페이지에 전형사이트를 보고 찾아요, 그리고 마침 그 대학에 잘 아는 장애인 언니가 계셨는데 얘기를 해주셨어요(시각장애 강○○).

사촌언니를 따라 대학을 견학하고 결정했습니다(청각장애 송○○).

선생님들께서 정보를 주셨어요, 영어 과외 선생님한테 받아요(지체장애 박○○).

장애대학생들은 대학진학 정보를 주로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였고 학교 선생님, 부모 또는 대학에 직접 방문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입시정보를 얻으려고 박람회도 가고, 입시설명회도 몇 번 갔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됐고, 인터넷에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 목록이 있었는데 학교 홈페이지 전형자료만 본 것 같아요.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카페가 있는데 후기를 참고해서 준비했어요. 특수교육대상자로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대학을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곳입니다(시각장애 박○○).

인터넷을 통해 수집했습니다(지체장애 오○○), 각종 대입 관련 사이트를 통해 조사하였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대부분 해당 학교의 목표와 시설, 평균 커트라인 그리고 취업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대학에 문의 전화도 넣어 보고, 부모님과 상의하여 대학 입시 관련 사이트, 카페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어요(청각장애 이○○).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대학 리스트를 뽑아주셨어요, 과 선택도 상담을 해주셨어요(지체장애 김○○), 저는 특수학급 선생님과 전화 상담을 통해 정보를 얻었습니다(지체장애 배○○), 고3때부터 음악 레슨 해주던 선생님들이 알아봐주셨어요, 그래서 고3때부터 그 학교에 맞춰서 레슨 했어요(발달장애 최○○).

### 3) 준비 어려움

장애고등학생은 대학진학 준비에 있어 정보의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언급하였고, 학교의 대학진학 지원이 부족하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학습내용의 어려움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특수교육전형자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 정보가 없어요. 어떤 대학을 가야하고 어떤 대학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뽑고 또 지금 제가 내신이 잘 나오는데 내신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도 모르겠어요(지체장애 최○○), 대학진학 준비를 학교에서 해 주지만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긴 해야 하는데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조금 더 잘 안내가 되었으면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청각장애 이○○), 대학진학 정보를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사이트마다 알아보긴 하는데 정보 접근이 어렵고, 찾긴 찾았는데 이게 정말 나랑 맞는지, 적성과 흥미가 맞는지 모르겠어서 어려워요(시각장애 강○○).

학교에서 그림 도구보다는 컴퓨터로 그려요, 종이에 그리는 도구는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도구가 없어요(지체장애 김○○),

시각장애인 저는 서점에서 책을 사도 쓸모가 없어요, 수험도서를 복지관에 점역을 요청해도 오래 걸려요, 학습자료도 부족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적고, EBS 동영상 공부하는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역 지원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제때 공부할 교재를 받아보기 어려워요(시각장애 정○○),

선생님들께서 수화를 하시지만 수험도서를 통역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자막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요(청각장애 박○○),

장애대학생이 응답한 대학진학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에 대한 답변으로 정보의 부족, 대학진학 지원 부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과 이동 지원 미흡을 언급하였다.

정보에 대한 어려움인데요, 제가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런 것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이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할 때 '그거 알아서 뭐하니?, 네가 안다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심하게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시각장애 최○○), 특별전형이 있는 대학교 위주로 봤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도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해 어려웠습니다(지체장애 이○○),

대학의 정보가 많을 텐데 선생님이 주신 정보는 너무 적었어요, 대학진학 정보를 선생님이 주시는 것에만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웠어요, 제가 눈치가 빨라서 보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정보만 가지고 대학 선정하는 게 어려웠어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청각장애인을 잘 리드해서 어느 대학은 어떤 점에서 좋은지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그것을 선택해서 가면 좋은데, 자세한 설명과 정보가 부족했어요(청각장애 이○○),

통합학급의 문제이긴 한데 칠판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대학교처럼 도우미 같은 것도 없고 PPT 자료 봐야 하고 선생님 말씀 듣고 참고해야 하는데 혼자서 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모의고사도 보고 싶는데 시험지 확대를 일일이 부탁드리기도 그렇고, 아예 편의제공이 안 되고, 자료 같은 것을 줘도 확대가 안 되고, 영어 같은 것은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다른 사람이 저의 조에서 피드백도 줘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시각장애 배○○), 통합학급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이나 속기 지원이 없어요, 처음 들어갈 때는 빨리 가야 맨 앞자리에 앉는데, 늦게 오면 맨 뒤에 앉아 불편해요(청각장애 김○○).

특수학교 구조 문제라고 표현할게요, 특수학교에서 진학준비반이라고 따로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진학지도 해 본 경험이라도 있으면 더 잘 지도할텐데 애초에 경험이 없는 분이 입시지도를 하고 있어요, 특수학교 선생님들이 잘 모르세요, 진짜 특별하게 입시지도를 오래 하신 분들이 그래도 잘 아시는데 저는 그나마 운이 좋아서 제가 어떻게 찾아야 된다는 정도는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서 여쭙는데 그 선생님은 일반학교에서 오신 선생님이시거든요(시각장애 강○○).

장애를 가지고 더 큰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과 부모님의 저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 학과 선택을 함에 있어 어려웠습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할 시기에 정확한 목표를 잡고 있던 시기에 저에게 맞는 학과를 고르는 것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시각장애 박○○).

저는 학교 시설 문제로 어려웠습니다, 희망하는 대학이 턱이 높거나 언덕의 경사가 심했고 넓은 건물이어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험보러 다닐 때 어려웠습니다(지체장애 이○○).

### 3. 대학진학 준비과정에서 제공받은 지원

#### 1) 지원 프로그램

장애고등학생들은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 대학 탐방, 진로 캠프, 적성검사 등을 제공받고 있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셔서 대학 탐방을 갔었어요, 아직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시각장애 강○○, 지체장애 최○○).

작년에 학교에서 00대학교를 탐방하고 왔어요(발달장애 정○○), 대학교에서 초대해 주신 대학탐방을 다녀왔어요, 생각없이 갔었는데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청각장애 강○○).

복지관에서 하는 적성검사를 받았어요(지체장애 최○○),

장애대학생들은 대학차원과 고등학교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 대학생들 가운데 통합학급 학생들의 일부는 대학진학과 관련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입시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고3 학생들을 불러 모아 경상도 지역 대학 뿐 아니라 인근 지역 대학도 같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름 도움이 됐습니다(발달장애 강○○),

저는 00대학에서 하는 예비대학 캠프에 참여한 적 있어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같이 있었는데 학과 체험을 통해 자세한 입시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청각장애 이○○),

저는 전문대 교수님이 학교에 오셔서 진학상담이 받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를 소개해 주셔서 도움이 됐어요(지체장애 한○○), 우리학교는 대학에 다니는 선배님들이 방문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해주어서 도움을 받았어요(시각장애 배○○),

고1때부터 매년 1학기에 진로 적성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고, 고1때부터 1주일 중 3일 정도 진학반과 취업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했고, 진학반 중 원하는 학생에 한하여 야간자율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도 고2부터는 중간 중간 고2~3학년을 대상으로 대학교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시각장애 강○○),

학교에서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제공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진학 지원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지체장애 강○○, 발달장애 오○○),

## 2) 장애로 인해 필요한 지원

장애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장애로 인해 특별히 제공받아야 될 지원으로 장애를 고려한 교수학습 지원 및 교재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고등학교 교과서 공부할 때 속기지원이랑 수화통역이 지원됐으면 합니다. 선생님들이 수화통역 전문가가 아니셔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해요.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청각장애 송○○).

예체능 지도 과외를 맞춤형으로 지도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음악 실기를 전공하고 있는데 학원비가 비싸서 과외를 못하고 복지관과 교회에서 잠깐씩 지도를 받고 있어요, 비장애학생처럼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해요(발달장애 김○○).

장애대학생들은 장애 특성을 고려한 대학진학 지원으로 교과수업의 통역 지원과 수험도서의 장애 접근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청각장애의 경우는 가장 힘든 부분이 의사소통 문제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통역이 원활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전문서적을 통역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청각장애 송○○).

약시인 저는 문과를 진학하고자 공부했는데 통합학급은 교재 점역이나 확대 서비스를 해줄 사람이 없어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장애학생에게 적합한 교재를 지원해주셔야 하는데 학교에서 잘 모르고 있어서 부모님께서 녹음을 해주신 경우가 많았어요, 장애학생이 맘편하게 대학입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시각장애 강○○).

### 3) 지원 프로그램 제공 형태

장애고등학생은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형태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응답하였다.

통합해서 비장애친구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고 있고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많으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지체장애 박○○).

장애대학생들은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제공 형태에 대해서 장애학생만의 분리 형태나 비장애학생과의 통합형태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 개선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애학생만 분리해서 프로그램을 제공받았으면 합니다, 지체장애라서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눈치가 보여요(지체장애 오○○),

대학에 가면 비장애학생과 함께 생활해야 하니까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도 비장애학생과 함께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시각장애 박○○),

대학 진학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통합을 하자, 분리해서 하자는 데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시각의 차이 같아요, 청각장애 입장에서 통합해서 상처를 받은 기억이 있고 힘든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을 기회로 삼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각각의 상황을 고려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지체장애 한○○),

#### 4. 대학진학 준비과정의 지원정책 요구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진학 지원정책에 대한 요구로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정부의 미흡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대학진학 지원 정책을 요구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육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곳에는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는 부분도 법에 구체화가 되어야 하는데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대학 들어간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고, 실질적인 대학 입학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특별전형에 대한 입학 안내를 대학이 하도록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행령이 바뀌어야 하지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지체장애 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과 선발 장애학생 수를 의무적으로 늘리도록 정책을 바꿨으면 좋겠어요(발달장애 조○○),

국가에서 대학지원정보 통합사이트를 구축해서 모든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공지를 띄워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마다 장애학생들의 입학정원이 다르니까 이런 것보다 차라리 정부에서 모든 대학에서는 최소 몇% 장애학생을 받아야 된다고 전체가 동일해지면 조금 더 장애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시각장애 오○○),

교육청 같은 곳에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데 힘들어하고 정보접근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하는지 알려주고 각 가정들에게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정들

에게 정보 같은 것도 주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서도 외국 같은 경우는 진학상담사가 다 있어요, 시각장애학생이 수업을 들으면 필기를 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학생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따로 도움을 주시는데 저희도 학교에서 9월 모의고사 때 알았는데 옆 반 선생님이 특수교육 담당선생님이래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이 들어오면 모의고사 시간 연장하는 것 다 도와주라고 했는데 저는 졸업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선생님께서 도와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시각장애 배○○),

장애학생이 모든 대학의 사이트를 찾아서 가고 싶은 대학은 검색하는 것은 어려워요, 나라에서 장애학생의 대학진학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진학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어서 특별전형 대학들 정보라 대학입시 교재 통역자료 등을 탑재해 주면 장애학생이 대학에 가는 것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학교선생님들도 수업도 많고 일이 많아 도와주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지체장애 조○○, 시각장애 강○○),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경험과 지원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결정 요인, 대학진학 준비, 제공받은 대학진학 지원, 대학진학 정책에 대한 요구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의 적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를 결정하였고, 부모와 가족이 대학 선택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대학진학 준비는 졸업학년에 임박해서 준비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장애학생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수험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어려움과 학교 차원의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아 진학정보가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진학 지원 정책은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진학정보 통합사이트를 구축해서 대학정보, 수험자료 등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장애학생이 대학 및 학과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었고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장애학생들은 대학진학 결정 1순위 고려사항으로 적성과 흥미에 따라 선택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장애 특성과 장애로 인한 안정된 일자리를 고려하여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언급하였다. 장애학생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선택한 대학과

학과를 부모 또는 선생님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장애로 인한 어려움 즉,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미흡한 지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경쟁해야 하는 취업문, 취업 후에도 장애 때문에 적응하기 힘든 직장생활 등을 듣게 되어 부모와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거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장애학생의 부모와 장애학생에 대한 지도 경험이 많은 선생님의 입장에서 장애학생의 진로를 걱정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장애학생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독립적인 생활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다. 물론, 장애인 스스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성인 전환기의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야 정책적인 해결 및 지원 방안들도 활발하게 마련될 것이다. 장애학생이 성인 전환기의 첫발을 내딛는 대학과 학과 선택 단계에서 부모와 교사는 장애학생이 희망하는 진로를 선택하도록 조언을 하되,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이 닥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 모든 예측 가능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 장애학생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대학 또는 학과를 결정하지만 전문적인 대학진학 상담은 고등학교 담임교사와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진학 관련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정소영, 2016).

둘째, 장애학생의 구체적인 대학진학 준비에서 언급한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즉, 졸업에 임박한 3학년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고등학교 장애학생이 대학교 진학 선택을 고등학교 3학년 때 보다는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고등학교 입학 전 시기에 하는 것이 옳다(정주한, 한경근, 2012)고 응답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몰라 마음만 조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 보다 대학진학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대학진학을 빨리 결정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필요가 있다. 최소한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취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학진학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여 이에 적합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학교차원에서 이원화된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정보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수집하고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김경화, 2013; 김경화, 김정민, 2014). 장애학생은 인터넷을 통해 대학진학 정보를 찾고 있으나 대학들은 대학입시 정보를 장애학생을 위해 구분하여 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학진학 정보를 안내하더라도 장애학생을 위한 정보접근이 불가능하여 자막안내나 수화통역, 음성 지원 및 화면확대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부족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애로 인해 정보를 찾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애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대학진학 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준비와

관련한 어려움으로 정보의 부족을 가장 많이 호소하였고, 장애 상황에 적합한 대학 진학 교육과 수험교재의 미흡을 언급하였다. 특수학교는 교사가 대학 진학지도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여 입시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였다. 통합학급은 장애에 대한 학교차원의 지원이 없는 불편함과 부당한 현실을 지적하였다.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 고등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대학진학 지도가 의무화되도록 정부의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있어서 학생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형태의 진학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고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여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나수현, 2003). 대학진학 지도 경험이 부족한 특수학교는 인근 일반학교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통합교육을 활성화하거나 대학진학 지도를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은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일정한 지원을 받고 있었다. 대학 탐방, 진로캠프, 적성검사 등으로 한정된 프로그램을 경험하였고 통합학급 학생의 일부는 대학진학과 관련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장애학생에게 제공되는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의 유형을 살펴보면 대학에 방문하여 견학을 하거나 예비대학 형태의 캠프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것은 고등학교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학진학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학들이 홍보차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장애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소극적인 고등학교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차원에서는 적성검사 등이 극소수 이루어지고 있었다. 통합학급과 특수학교 모두 장애학생을 위해 대학진학 지원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통합학급은 비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지도에 모든 관심이 집중될 것이고 특수학교는 중증장애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교사가 대학진학 지도까지를 병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개별화교육 취지에서 볼 때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장애학생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차원의 지원이 제공되는 것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당연한 요구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다.

대학진학 지원 프로그램 제공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은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나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정주환, 한경근, 2012; 정소영, 2016). 특히 장애학생의 통합학급 재학은 급증하고 있고 대학에 입학 진학률도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합학급에 대한 대학진학 지원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학급의 경우, 일반교사가 특수교사와 협력하여 대학진학 지도를 하고 통합학급 차원에서 어려운 프로그램 지원은 교육청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장애유형은 다양하고 요구 또한 다양하여 대학진학 지도를 위해 장애유형과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지원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정책에 대해 정부의 미흡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체계적인 대학진학 지원 정책을 요구하였다. 장애학생의 고등교육과 관련하여 대학 진학 이후의 법적인 명시만이 있고 대학진학까지의 과정에 대한 법적 정책적 방안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장애학생 대부분은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각 대학들의 정보를 수집해야 함에도 무방비상태의 대학 안내에 정부는 아무런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다. 또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함에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수험서나 통역 등이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보 제공이 가장 시급하다고 하였고, 개선 요구로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진학정보 통합사이트 운영 및 음성 및 수화통역, 문자통역 등 정보 접근 의무화를 언급하였다. 앞서 많은 장애학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대학진학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 대학 홈페이지를 통한 진학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대학입학 정보들을 통합관리하고 각 대학들이 통합정보 사이트에 안내 정보를 탑재하고 고등학교에서 활용하도록 개방하면 장애학생은 하나의 정보망을 통해 대학진학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고등학교 장애학생들이 대학진학 수험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 접근 지원이 된 동영상 자료 등을 탑재할 필요가 있다. 장애학생에게 고등교육은 사회통합에서 양질의 직업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고등교육 기회 확대는 적극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므로(Carroll, Blumberg, & Petroff, 2008; Hart, Grigal, & Weir, 2010), 정부는 대학진학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경주해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경험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제기되었다. 언제부터 대학진학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부터 장애와 관련하여 필요한 수험지원까지 어느 것 하나 참고할 진로 자료는 없고, 학교에서의 진학지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차원의 장애학생 대학진학 준비 안내서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학생이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 스스로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도록 자발적 노력만을 강요하는 것은 교육권 보장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 장애 상황을 고려한 특별 프로그램 형태로 대학진학 지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학교는 대학진학 준비 안내서에 따라 장애유형별로 체계적인 진로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대학 체험 및 예비대학 캠프 참여와 멘토링 등 장애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Madaus, 2006).

셋째, 장애학생은 대학진학과 관련한 준비에서 능동적인 정보 탐색, 학과 결정 등 다양한 경험을 시도하고 있으나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다. 더

적극적인 진로준비(조현진 외, 2016)가 가능하도록 정부차원의 통합정보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와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해 통합정보망이 구축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면담에 참여한 장애학생은 전국 대학과 특수학교(급)에 재학하고 있으나 장애등급이 대부분 중증장애에 해당하였고 대학생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경우가 많아 모든 장애학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없어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장애학생은 대학진학 지원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정부에 다양한 진학 지원이 의무화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유관기관별 지원 체계를 구조화하여 진학 지도를 수행하는 지원 모형이 개발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 (2014).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 (2015). **특수교육통계**.
- 교육부 (2016). **특수교육통계**.
- 국립특수교육원 (2010). **특수교육백서**. 안산: 국립특수교육원.
- 권현용, 김현미 (2004). 장애대학생의 자기개념과 우울 및 불안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7(2), 43-56.
- 김미선, 박중휘 (2013). 시각장애 대학생의 대학 내 교육복지 지원 경험과 인식. **시각장애연구**, 29(2), 1-22.
- 김경선, 김동일, 정소라, 이재호, 장세영 (2013). 장애·비장애 대학생의 취업준비도 특성 탐색: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23(3), 65-83.
- 김경화 (2013). 명문 대학에 입학한 장애학생 실태조사. **특수교육연구**, 48(2), 219-243.
- 김경화 (2014). 장애신입대학생들의 고등학교에서 제공받았던 대학 진학 관련 전환교육 및 서비스에 대한 인식 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8(4), 299-315.
- 김경화, 김정민 (2014). 1-100위권의 4년제 대학에 입학한 청각장애학생들의 실태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9(1), 23-48.
- 김동일, 이태수, 김익수, 김혜영, 박유정 (2004). 장애인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애와 고용**, 52(2), 5-24.
- 김종인 (2006). **정신지체인의 고등교육: 대안교육에서의 가능성 탐색**. We Can 정신지체인의 고등교육 토론회 자료집.
- 나수현 (2003).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특수학교 학생의 대학진학 활성화를 위한 고등부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교사와 학생들의 지원요구 조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승재 (1998). 시각장애 학생의 대학 진학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근, 김정현 & Hosp. J. L. (2013). 발달장애 학생들의 고등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실천적 과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3), 231-257.
- 서선진 (2010).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전환-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장애대학생들의 대학입시준비 및 대학적응 경험을 중심으로. **재활복지**, 14(1), 31-53.
- 양경미 (2011). 발달장애학생의 대학 진학 요구에 대한 특수학교 교사의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소현, 이숙향, 윤선아, 김지영 (2013). 자폐 범주성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지원 요구 및 방안: 대학생 및 부모의 경험과 인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8(3), 175-205.
- 이윤미 (2012). 발달장애학생 대학교육 입학 및 지원에 대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인식 연구.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5(3), 71-92.
- 이은철, 김진호 (2007). 전환교육과 성인생활에 대한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 비교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8(3), 551-574.
- 이효정, 이영선 (2011). 자폐범주성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및 전환관련 연구동향과 과제. **정서·행동장애연구**, 27(4), 279-305.
- 정소영 (2016). 장애학생의 대학진학 준비요인에 따른 요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4), 195-218.
- 정의석, 이해균, 김정현 (2011). 시각장애학교 고등부학생의 대학진학지원 서비스 실태 및 개선 방안. **시각장애연구**, 27(3), 113-145.
- 정주환, 한경근 (2012). 고등학교 완전통합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 및 진학 지도 현황과 개선 방안. **장애와 고용**, 22(4), 77-111.
- 조현진, 서보순, 박재국, 박량은 (2016). 장애대학생의 진로결정 과정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7(1), 239-267.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15). **전국 장애대학생 통계 조사**.
- 한경근 (2006). **정신지체인의 고등교육: 대안교육에서의 가능성 탐색**. We Can 정신지체인의 고등교육 토론회 자료집.
- Carroll, S., Blumberg, R., & Petroff, J. (2008). The promise of liberal learning: Creating a challenging post-secondary curriculum for youth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Focus of Exceptional Children*, 40(9), 1-12.
- Glesne, C., & Peshkin, A. (1992). *Becoming qualitative researchers*. New York: Longman.
- Goetz, J. P., & LeCompte, M. D. (1984). *Ethnography and qualitative design in educational research*. London. Academic Press, Inc.
- Hart, D., Grigal, M., & Weir, C. (2010). Expanding the paradigm: Post-secondary education options for individual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Focus of Autism and Other Developmental Disabilities*, 25(3), 134-150.

- Madaus, J. W. (2006). Improving the transition to career for college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Suggestions from graduates. *Journal of Postsecondary Education and Disability, 19*(1), 85-93.
- Rowell, P. C., Mobley, A. K., Kemer, G., & Giordano, A. (2014). Examination of a group counseling model of career decision making with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7*, 163-174.

## Preparation experience and support demand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for college entrance

Jeong, So-You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Welfare

###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study the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preparing to advance into college. It investigates determining factors when selecting a college, preparing to advance into a college, any support received for college advancement, and the needs toward policies that address college advancement. A total of 60 students, including 20 high school students and 40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research.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participants chose their majors with considerations to aptitud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disability, and parents as well as teachers had the largest influence on choices regarding college advancement. Students prepared college advancement near the final year of high school and collected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suffered from difficulties including the lack of customized preparatory materials developed for th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disabilities, and they complained the lack of information on college advancement due to the small number of programs that support college advancement at the school level. Compared to non-disabled students, policies to support college advancement of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were not implemented in an orderly manner, and students demanded the government to provide college information, resources to prepare for college entrance examinations etc. by creating an integrated college information website.

**Key Words :** College students with disabilities, Preparing for College entrance, College entrance selection factor

---

논문 접수: 2017. 03. 05 심사 시작: 2017. 03. 10 게재 확정: 2017. 04. 10